

정답과
해설

I 문학

DAY 1 시 / 시조

본문 010~017쪽

기본 다지기

014~015쪽

◆ 3월 | 오규원

| 작품 설명 |

이 시는 비유를 활용하여 이른 봄의 계절 변화를 노래한 작품이다. 봄눈이 쌓인 풍경을 '하얀 이불'에 빗대고, 봄눈이 녹은 자리에 새싹이 돋아난 모습을 '잠자리에서 뛰어오는 아이들'에 빗대는 등 다양한 비유 표현을 활용하여 풍경의 변화와 분위기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구절과 의성어, 의태어 등은 시의 운율을 형성하여 시를 읽는 재미를 부여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이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	운율 형성 방법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의 반복
평 평, 나즉 나즉, 좌아악, 왁자지껄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

이 시의 비유 표현

표현하려는 대상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산과 들에 쌓인 눈	하얀 이불
물소리	자장가
파란 싹들	아이들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② 2 ④ 3 ⑤

핵심만 바로 체크

- 이 시는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 아니라 이른 봄의 계절 변화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1~4연에서는 3월의 봄눈이 내린 날의 풍경과 분위기를, 5~8연에서는 봄눈이 내린 그 다음 날의 풍경과 분위기를 노래하고 있다.
- 이 시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의 반복과 '평 평, 나즉 나즉, 좌아악, 왁자지껄'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이 시에서 '하얀 이불'은 '산과 들에 쌓인 눈'을 간접적으로 비유한 표현, 즉 은유법이 활용된 표현이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1~4연에서는 봄눈이 내린 날의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5~8연에서는 봄눈이 내린 다음 날, 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싹들이 일어난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봄눈이 내린 날에서 봄눈이 녹은 그 다음 날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③, ⑤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 / 눈부시게 / 하얀 이불을 덮고 / 잠이 들었다'에서 은유법이 사용되었으며, 3연과 4연에서는 '굴뚝을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7연에서는 땅에 돋아난 '파란 싹들'을 '아이들'로 직접적으로 빗댄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7연과 8연에서 '파란 싹들'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④ 이 시는 '아침부터 / 평 평', '산과 / 들이 / 눈부시게'와 같이 한 행의 길이가 비교적 짧게 구성되어 있다.
- 이 시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의 반복을 바탕으로 내재율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행마다 규칙적인 호흡으로 끊어 읽는 마디를 동일하게 반복하지는 않는다.
- 이 시의 7~8연에서 봄눈이 녹은 자리에 솟아오른 '파란 싹들'을 잠자리에서 뛰어 나온 '아이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두 대상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기본 다지기

016~017쪽

◆ 사랑하는 별 하나 | 이성선

| 작품 설명 |

이 시는 '별', '꽃' 등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별'과 '꽃'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를 상징하며, 말하는 이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동시에 그러한 존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는 삶을 꿈꾸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이 시의 상징 표현과 그 의미

별	꽃	길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힘이 되는 존재 등	내게 공감해 주는 존재, 나를 포용해 주는 존재 등	앞으로 살아갈 날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상징 3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⑤ 2 ① 3 ③ 4 길

핵심만 바로 체크

- 이 시의 1~2연에서는 '될 수 있을까'라는 시구를, 3~4연에서는 '되고 싶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말하는 이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이 시는 '별', '꽃', '길'과 같은 시어에 말하는 이의 소망과 관련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누군가에게 '별', '꽃'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자신도 '별'과 같은 존재를 갖고 싶다고 말한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삶을 소망하고 있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1연에서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 될 수 있을까.', 2연에서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표현으로 어떠한 대상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말하는 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② 이 시에서 자연물인 '별'과 '꽃'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는 말하는 이에게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말하는 이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존재를 상징한다.
 ③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은 시적 대상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이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시적 대상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④ 말하는 이는 의미 있는 존재를 갖고 싶은 바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서로에 대한 인정이 사라진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이 시는 1연과 2연에서 '나도 ~이 될 수 있을까. ~는 ~이 될 수 있을까.'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이 시에서 '꽃'은 누군가가 괴롭고 쓸쓸한 순간에 안길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꽃'은 누군가를 공감해 주고, 포용해 주며, 위로가 되어 주는 긍정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지만,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 주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 '길'은 말하는 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상징하는 시어이며, 말하는 이는 이러한 '길'을 비추어 줄 존재를 소망하고 있다.

기본 다지기

018~019쪽

◆ 새로운 길 | 윤동주

| 작품 설명 |

이 시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고백적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다. '길'에 '인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하는 이의 삶의 자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핵심 보기 |

이 시의 상징 표현과 그 의미

시어	상징적 의미
내, 고개	고난, 어려움
숲, 마을	희망, 평화
길	삶, 인생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로, 삶에 대한 희망을 주는 존재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③ 2 ② 3 ① 4 ㉠: 어려움, 고난, 역경
㉡: 숲, 마을

핵심만 바로 체크

- 이 시는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고 있는데, '숲'은 희망과 평화, '고개'는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 '민들레'는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를 상징한다.
- 이 시에서 '길'이라는 시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를 모든 연에서 규칙적으로 반복하지는 않는다.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말하는 이의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이 시에서는 인생을 상징하는 시어인 '길'을 비롯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내, 고개, 숲, 마을, 민들레 등 구체적인 사물로 드러내고 있다.
- 이 시는 1연을 마지막 연인 5연에서 다시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말하는 이의 삶의 태도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말의 순서를 바꾸어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의 내용을 이 시의 마지막 연인 5연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다.

③, ④ 1연과 5연을 반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1연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하는 이의 삶의 태도와 의지를 드러낸다. 이를 마지막 연에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3 이 시의 3연에서 ‘만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말하는 이가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를 상징한다. 하지만 ‘고개’는 말하는 이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 고난, 역경 등을 상징한다.

4 이 시에서 ‘내’와 ‘고개’는 말하는 이가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등을 의미하고, ‘숲’과 ‘마을’은 말하는 이가 가고자 하는 평화로운 공간, 즉 희망과 평화를 의미한다.

핵심만 바로 체크

1 이 시의 1~11행에서 말하는 이는 ‘딱지’와 관련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2 13~14행의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를 통해 말하는 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이 시는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면서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인생의 과정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딱지와 관련된 아버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을 참고 견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접한 독자들은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극복하면 언젠가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 시의 ‘딱지’는 몸이나 마음에 난 상처 또는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시련 등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시에서 ‘딱지’를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상처로 표현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3 ‘아버지의 말씀’은 7행과 17행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의 ‘나’에게 생긴 마음의 딱지 역시 몸에 생긴 딱지처럼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가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한 질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기본 다지기

020~021쪽

◆ 딱지 | 이준관

| 작품 설명 |

이 시는 상처에 생긴 딱지를 억지로 떼어 내지 말아야 상처가 낫는다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을 통해, 시련을 이겨 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입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표현한 작품이다.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으며 비유 표현을 사용해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핵심 보기 |

말하는 이의 성장 과정

어린 시절의 ‘나’	홍물 같은 딱지를 싫어하며 손톱으로 긁어서 떼어 내려고 함.
아버지의 조언	딱지를 떼어 내지 말아야 상처가 낫고, 새살이 돋는다고 조언함.
성인이 된 ‘나’의 깨달음	몸에 생긴 딱지를 떼지 않아야 상처가 낫는 것처럼 마음속에 생긴 딱지 역시 저절로 떨어지는 과정을 겪어야만 상처가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음.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④ 2 ① 3 ⑤

DAY 3 시 / 시조

본문 022~027쪽

기본 다지기

022~023쪽

◆ 오우가 | 윤선도

| 작품 설명 |

이 시조는 조선 시대의 문신인 윤선도의 작품으로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 삼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각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자연물이 지닌 덕을 예찬하였다.

핵심 보기

자연물의 속성과 상징적 의미

자연물	속성과 상징적 의미
물	• 깨끗함(청렴함). • 그치지 않음.
바위	변하지 않음(불변성).
소나무	꼭꽂함(지조와 절개).
대나무	• 곧음(군건함). • 속이 비어 있음(청렴함).
달	• 온 세상을 다 비춤(포용성). • 보고도 말이 없음(과묵함).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⑤ 2 ④ 3 ④ 4 포용하는 태도와 과묵한 태도

핵심만 바로 체크

- 이 시조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과 같은 자연물을 다섯 번이라고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그 속성을 유교적 이념에 연결하고 있다.
- 이 시조 전반에 걸쳐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 말하는 이의 벗으로 등장하며, 각각의 속성을 통해 말하는 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제2수에서 말하는 이가 바람보다 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꾸 그치는 바람보다 깨끗하고 그치지 않는 물의 속성 때문이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제6수에서는 포용성과 과묵함을 지닌 ‘달’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으며, 자연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 임금의 은혜를 달빛에 빚댄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이 시의 제1~6수에 걸쳐 말하는 이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자신의 벗으로 여기며 예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② 제1수에서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소개하고, 나머지 다섯 수에서 차례대로 다섯 벗을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③ 제3수에서 쉽게 변하는 ‘꽃’과 ‘풀’의 속성과 대조하여 변하지 않는 ‘바위’를 예찬하고 있다.
 ④ 제4수에서는 ‘꽃’과 ‘잎’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를 설명한 후, 중장과 중장에서 ‘소나무’가 눈서리에도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이와 대조하여 벗으로서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칭찬하고 있다.
- ‘바위’와 ‘솔(소나무)’은 가변성을 지닌 ‘꽃’, ‘풀’, ‘잎’과 달리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지키는 존재들이다.

- 이 시조는 외형률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세 글자와 네 글자의 배열을 반복하거나, 4음보의 단위로 끊어 읽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치하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제6수에서 ‘달’은 온 세상의 만물을 비추는 넓은 마음(포용성)과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과묵한 태도를 지녔다고 노래하고 있다.

실력 쌓기

024~027쪽

- 01 ④ 02 ⑤ 03 ① 04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05 ② 06 ③ 07 ⑤ 08 ⑤ 09 ⑤ 10 ⑤
 11 ④ 12 ① 13 성장 14 ④ 15 ④ 16 ②
 17 제2, 3, 4수

- 이 시는 시각적 심상(‘눈부시게 하얀 이불’), 청각적 심상(‘물 소리만 나죽 나죽’) 등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른봄의 생동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시는 꽃이 만개한 봄날이 아닌, 봄눈이 내리고 그 다음 날 눈이 녹아 새싹이 돋아난 이른 봄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② 이 시에서 새싹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시에서 봄눈은 새싹과 대조되는 시어가 아니며, 생명을 향한 의지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시는 풍경과 분위기를 재치 있게 묘사하고 있을 뿐, 비현실적인 장면이나 이상향에 도달하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소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 이 시의 1~4연은 전반부로, 봄눈이 내린 날의 풍경에서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5~8연은 후반부로, 그 다음 날 봄눈이 녹고 새싹이 일어나는 풍경에서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 ‘하얀 이불’, ‘자장가’, ‘아이들’은 각각 ‘쌍인 눈’, ‘물소리’, ‘파란 싹들’이라는 원관념을 빗대어 표현한 보조 관념이다.
- [A]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파란 싹들’이 돋아난 모습을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를 통해 이른 봄의 생동감과 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주는 존재를 ‘별’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로 표현하면서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고 소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 과거 회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말하는 이는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와 같이 의미 있는 존재를 갖기를 소망한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가 주변에 자신을 이해해 주는 존재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말하는 이는 외로운 자신을 위로해 줄 누군가를 소망하고 있을 뿐, 미래에도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⑤ 말하는 이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은 있으나, '될 수 있을까'와 같이 의문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임을 확신한다고 보기 어렵다.

06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눈물짓듯 웃어 주는'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누군가의 괴로움과 슬픔 등에 공감하고 이를 위로하며 웃어 준다는 뜻이다.

오답 풀이 ① ㉠ '눈 마주쳐 마음 비쳐 주는'은 외로운 마음을 알아 주고 위로가 된다는 뜻이다.

② ㉡ '화안히'는 '환히'를 의도적으로 늘어 쓴 표현이며 이를 통해 운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④ ㉢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은 말하는 이의 현재 상황이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 '나를 씻어'는 '나'의 마음을 정화해 준다는 뜻이다. 또한 '길'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비추어 희망을 준다는 의미이다.

07 이 시에서 '별'과 '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힘이 되어 주는 존재, 공감해 주는 존재, 포용해 주는 존재 등을 상징한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시어나 시구는 찾을 수 없다.

08 이 시에서 '별'과 '꽃'은 외롭고 쓸쓸한 상황 속에서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로, 말하는 이의 소망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소재이다. 이러한 상징 표현은 막연한 대상을 눈에 보이는 사물로 표현하여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대상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09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말하는 이는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길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 내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길(인생)을 걸어가겠다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 이 시는 1연을 5연에서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시에 안정감을 부여하며, 말하는 이의 삶의 태도와 주제를 강조한다. 또한 1연과 5연에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시어가 사용되었을 뿐,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적으로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A]는 성인이 된 현재의 말하는 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나 갈등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음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A]는 아버지와 말하는 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마주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말하는 이가 아버지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A]에서 말하는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말하는 이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고 추측하기는 어렵다.

③ [A]에서 말하는 딱지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상처로 인한 것이다.

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통해 말하는 이의 마음이 여러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말하는 이가 소심하여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 ㉡, ㉢은 모두 몸에 생긴 딱지를 의미하며, ㉣, ㉤은 새로 돌아난 살을 의미한다.

13 이 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딱지'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돋는 것처럼 사람은 상처를 입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14 말하는 이는 자연물을 다섯 벚이라고 칭하며 자연물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또한 자연물의 덕성을 바탕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조에서 자연물을 본받고자 하는 태도는 드러나지만, 자연물을 통해 말하는 이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이 시조는 자연물 그 자체를 예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연물을 통해 세상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시조는 자연물의 가치를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물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칭송하고 있다.

⑤ 말하는 이는 벚살을 피하거나 자연물을 가까이하며 사는 즐거움보다는 자연물로부터 깨달은 진리를 노래하고 있다.

15 이 시조의 제5수에서는 곧고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의 특성을 바탕으로 외형적으로 굳건하면서도 내면은 비우고 청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나무는 지조와 청렴함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16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은 반어이다. 이 시조에는 문답법, 설의법, 상징 표현, 대구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활용되었으나, 반어는 활용되지 않았다.

17 제2, 3, 4수에서는 쉽게 변하는 속성을 가진 자연물인 '구름', '바람', '꽃', '풀', '잎'을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물', '바위', '소나무'와 대비함으로써 말하는 이가 본받고자 하는 자연물의 속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기본 다지기

032~039쪽

◆ 하늘은 맑건만 | 현덕

| 작품 설명 |

이 소설은 문기가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뒤 다양한 갈등을 겪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 문기가 겪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그리고 문기의 심리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양심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갈등의 종류	갈등의 양상	갈등의 해결 과정
문기의 내적 갈등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산 공과 생안경을 수만에게 받았다고 삼촌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낌	문기는 공과 생안경을 버리고, 남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안마당에 던짐.
문기와 수만의 외적 갈등	수만은 남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를 협박함.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줌.
문기의 내적 갈등	문기는 자신이 숙모의 돈을 훔쳤는데 점순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죄책감에 시달림.	문기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음.

소주제 발단 거스름돈 전개 1 수만, 반성 전개 2 고깃간 위기 1 숙모 위기 2 점순, 누명 절정 자백, 교통사고 결말 고백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4 죄책감 5 ○ 6 ○ 7 정직 8 ○ 9 자신, 마음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② 2 ⑤ 3 ⑤ 4 ② 5 ① 6 ② 7 ③ 8 ⑤ 9 ④ 10 ②

핵심만 바로 체크

-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문기는 당황하여 숙모에게 사실대로 말하려 했지만, 친구 수만의 제안에 흔들리며 결국 숙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수만은 문기에게 잔돈만 숙모에게 주고 나머지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자고 제안했고, 문기는 이에 동조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 (다)에서 수만은 문기가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평소에 원하던 물건을 마음껏 사자는 제안을 하고, 문기는 이를 받아들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문기는 갈등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친구의 부추김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 (라)에서 문기와 수만은 환등 기계를 사서 아이들에게 일 전씩 받고 구경을 시켜 주는 계획을 세운다. 이를 통해 용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다. 즉, 즐거운 계획이란 단순히 환등 기계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용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 (바)에서 문기는 삼촌에게 혼난 후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삼촌이 문기에게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훈계를 하자, 문기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 (자)에서 쓰고 남은 거스름돈을 고깃간에 던져서 이제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에 수만은 문기가 혼자 돈을 쓰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카)에서 문기는 숙모가 점순이 돈을 가져갔다고 말하자 속으로 돈을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파)에서 문기는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운동장에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 [A]에서 문기는 수신 시간에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진다는 의미로, 이러한 문기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 (너)에서 문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삼촌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문기는 마음속에 쌓였던 죄책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된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의 정황이나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속의 인물이 서술자 역할을 하는 1인칭 시점으로 볼 수 없다.
 - 수만과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을 사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데 쓰기로 마음먹는다. 따라서 이 둘이 돈을 사용하고 싶은 곳이 달라 갈등을 겪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수만은 거스름돈을 쓰자고 문기를 꺾어내고 있다. 자신의 돈도 아니면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행동에서 수만은 겁이 없고 영악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돈을 쓰자는 수만의 말에 머뭇거리는 문기의 모습으로 보아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③ 수만이 문기에게 돈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면서 문기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④ 문기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문기는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인물이다.

3 수만이 말한 ‘좋은 일’이란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 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4 (마)에서 삼촌은 문기의 말을 믿어 주며 문기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훈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삼촌이 문기의 거짓 말을 눈치채게 되면서 문기와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라)에서 문기는 수만과 함께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면서 기쁨을 느끼나, (마)~(바)에서 삼촌의 훈계를 들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후 (사)에서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산 물건들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안마당에 던져 놓으면서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후련함을 느끼게 된다.

6 (자)~(차)에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문기와 그런 문기를 협박하는 수만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수만과의 외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쳤으나, 이 행동은 또 다시 문기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문기의 행동은 불완전한 갈등 해결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나. 이 글에는 주인공인 문기의 내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문기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저항하는 인물이 아니다. 다. 하나의 갈등이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여 사건이 얹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행동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 (차)에서 문기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숙모가 화초 모종을 하는 사이 몰래 불장 안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었다. 따라서 문기가 숙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8 점순은 문기 대신 불장에 있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문기는 이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

9 이 글의 결말인 (너)에서 문기가 숙모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하늘’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문기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문기가 회복하고 싶은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상징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기본 다지기

040~047쪽

◆ 명키스패너 | 진형민

| 작품 설명 |

이 소설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고장 난 화장실의 전등불과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면서 생긴 ‘한경’의 변화와 성장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소설 속 주인공인 ‘나’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한경’의 심리 변화와 내면의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 핵심 보기 |

세면대를 고치기 전 ‘나’의 태도

- 엄마가 없는 동안 동생 한아를 돌봐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김.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임.

세면대를 고치친 후 ‘나’의 태도

- 함께 세면대를 고치며 한아의 존재가 자신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

소주제 발단 전등불, 세면대 전개 수리비 위기 관리 사무소

절정 근심, 스스로 결말 뿌듯함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4 × 5 한성 설비 6 × 7 × 8 ○ 9 × 10 명키스패너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③ 2 ② 3 혹 4 ④ 5 ④ 6 ③ 7 ① 8 명키스패너 9 ④ 10 ⑤

핵심만 바로 체크

1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인공이 자신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소설은 소설 속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에서 엄마는 냉장고 안에 한아가 좋아하는 밀반찬들을 짹짹 채워 두었다고 했을 뿐, ‘나’가 좋아하는 밀반찬을 채워 넣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엄마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엄마가 한아를 아기처럼 취급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다)에서 한아가 화장실 문을 열고 불일을 본 것은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4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나’는 엄마가 돌아와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 5 (마)에서 만년 철물점 할머니는 한성 설비에 대해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등 막힌 건 무엇이든 다 뚫어 주는 곳이라고 말하며, '나'에게 한성 설비에 막힌 세면대 문제를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 6 '나'가 세면대를 뚫기 위해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은 '만년 철물점'이다. 이후 '나'는 관리 사무소에 한번 가 보라는 만년 철물점 할머니의 말을 듣고,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다.
- 7 '나'는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멍키 스패너를 빌리고, 혼자 동영상を 찾아보고 순서대로 막힌 세면대를 뚫었다. 따라서 자전거 가게 사장님이 '나'에게 세면대 뚫는 법을 알려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8 (차)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해 동영상을 따라 작업했고, 배수관을 막고 있던 머리카락 뭉치를 빼내었다. 이를 통해 세면대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았던 것은 머리카락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9 (타)에서 '나'는 한아도 유리컵에 주스를 마시는 맛과 멋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유리잔에 오렌지주스를 따라 한아에게 주었다.
- 10 (파)에서 '나'는 멍키 스패너를 손에 쥐면 자신의 힘이 몇 배로 커지면서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멍키 스패너로 세면대 고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1 (나)에서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배고프다는 동생의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잠을 자느라 동생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가)에서 '나'는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나)에서 '나'는 자신과 달리 여덟 살이 됐는데도 아기 취급을 받는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④ (라)에서 한아가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 '나'를 부르자, '나'는 “언니가 저번에 알려 줬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물이 ……”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나'가 이전에 한아에게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 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나'는 화장실의 전등불에 이어 세면대까지 고장 나자, 엄마가 돌아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2 '엮친 데 덮치다'는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치어 일어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은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연달아 발생한 것을 가리키므로, '엮친 데 덮치다'라는 관용구를 쓸 수 있다.
- 3 (나)에서 '나'는 '엮구리에 흙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라고 하였다. 이때 '흙'은 동생 한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동생을 귀찮게 여기는 '나'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 4 (마)를 통해 수리비와 별도로 한성 설비 사장님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성 설비에서 세면대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5만 원보다 더 많이 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5 '나'는 물건을 수리하기 위한 인건비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나무라는 만년 철물점 할머니의 말도 틀린 건 아니라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돈이 많으면 얼마든 순순히 낼 수 있지만, 자신은 엄마가 주고 간 1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인다.
- 6 (아)에서 한아의 근심 어린 두 눈을 본 '나'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보란 듯이 양치물을 바닥에 댔 뻔으며 '한번 해 보지, 뭐. 안 되면 말고.'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풀이** ① (차)에서 '나'와 한아는 힘을 합쳐 막힌 세면대를 뚫었다.
 ② (아)에서 사건의 시점이 토요일 아침에서 그 전날인 금요일 밤으로 전환되고 있다.
 ④ '나'는 처음에는 동생을 귀찮게 여겼으나, 함께 배수구를 고칠 때 냄새를 참아가며 의리를 지키는 한아를 보고 대견함을 느끼고 있다.
 ⑤ (차)에서 '나'는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다섯 번쯤 돌려보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7 (아)에서 동생 한아의 근심 어린 눈동자를 본 '나'는 '한번 해 보지, 뭐. 안 되면 말고.'라는 다짐을 하며, 자신이 직접 막힌 세면대를 고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 8 (자)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며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서는 '멍키 스패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자전거 가게 사장님께 빌렸다.
- 9 (카)에서 '나'는 세면대가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하였으나, 세면대가 뚫린 것을 확인한 뒤에는 “별짓도 아니네.”라고 말하며 성취감과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고 난 후 뿌듯함, 성취감, 자신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
 ② 엄마는 한아를 아기 취급하며 유리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타)에서 '나'는 엄마와 달리, 한아도 이 맛과 맛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한아에게 오렌지주스를 유리컵에 따라 주었다.
 ③ '나'는 막힌 세면대를 고치는 데 성공한 후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화장실 전등불을 가는 것에도 도전한다. 이를 통해 '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된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카)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고친 후, 내친김에 나머지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철물점에 가서 화장실 전구를 샀다. 그리고 (타)에서 한아를 묵욕시키던 '나'는 머리 위의 불빛이 환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한 뒤에 화장실 전등불까지 고쳤음을 알 수 있다.

- 10 ㉠은 엄마가 없는 동안 화장실의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모두 해결하여 원래의 문제 없는 상태로 되돌려 놓았음을 의미한다.

DAY 16 소설

본문 048~055쪽

기본 다지기

048~055쪽

◆ 동백꽃 | 김유정

| 작품 설명 |

이 소설은 산골 마을의 소년과 소녀의 순박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순박하고 어수룩한 '나'가 점순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면서 해학성이 유발되고, 점순이 벌인 닭싸움을 통해 갈등이 발생한다. 사건의 흐름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비속어와 사투리의 사용으로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결말 부분에서는 동백꽃을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 핵심 보기 |

갈등의 원인	점순이 호감의 표시로 '나'에게 감자를 주지만, '나'는 감자를 받지 않음.
갈등의 진행	점순이 닭싸움을 시켜 '나'의 닭을 괴롭히자, '나'는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네 닭을 이기려고 함.
갈등의 해결	'나'가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 것을 점순이 어른들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하고, '나'와 점순은 동백꽃 속으로 쓰러짐.

소주제 발단 싸움 전개 감자, 거절 위기 고추장 절정 괴롭

결말 동백꽃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⑤ 2 감자 3 ② 4 ④ 5 ④
6 ⑤ 7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쏠리지 눈살을 찌푸렸다. 8 ⑤ 9 ② 10 ⑤ 11 (노란) 동백꽃

핵심만 바로 체크

- (가)와 (나)에서 '두 놈이 또 얼렸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났을 것이다' 등을 미루어 보아 점순이 의도적으로 두 수탉을 싸움 붙이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는 '점순'이 "느집엔 이거 없지?"라고 한 말이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했고, 이 때문에 점순이 준 감자를 거절한 것이다.
- 감자로 자신의 마음을 '나'에게 전했지만 거절당한 점순은 일부러 닭싸움을 부추기며 '나'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점순네는 마름집이고, 나의 집은 소작인이라는 사회적 신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점순네에 뛰어 들어가 적극적으로 암탉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대신 '나'는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치면서 답답함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나'는 점순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어수룩함이 이 글의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 '나'는 자신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밀리는 상황을 보며 고추장을 먹이는 방법을 떠올린다. 그리고 수탉이 고추장을 먹고 점순네 수탉에게 반격하자 (차)에서 "웁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라고 외치며 기뻐한다. 이는 '나'가 점순네 수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카)에서 점순은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계속 쪼여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며 깔깔 웃는다. 점순이 이렇게 크게 웃는 것은 단순히 즐거워서가 아니라, '나'를 약 올리며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 8 '나'는 닭을 때려죽인 후 기뻐하기보다는 당황하고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 (하)에서 '나'는 닭을 단때로 때려 죽인 후, '멍하니 서 있다가',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이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점순에게서 나오는 꾸짖음에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9 (거)에서 점순은 '나'에게 이다음부터 안 그럴 것이냐고 물으며 '나'와의 화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 10 (거)에서 '나'는 점순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래!"라고 대답하고 있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1 점순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감자를 건네지만, '나'는 점순의 호감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를 거절한다. 이 사건 이후 점순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자기네 수탉과 '나'의 수탉 사이에 싸움을 붙이며 '나'와 갈등하게 된다.
- 2 점순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감자를 건네며 표현한다. 그러나 이런 점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나'가 호의를 거절하자 둘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다.
- 3 이 글에는 마름의 딸인 점순과 소작인의 아들인 '나' 사이의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나'에게 호감이 있는 점순과 이런 점순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일 뿐, 마름과 소작인 사이의 계층 간 갈등을 강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① 이 소설은 열일곱 살 점순과 '나'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미묘한 감정을 그리고 있다. ③ '암팡스레 때 주는 것이 아닌가',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이놈의 계집애' 등의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글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④ 이 소설은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씨암탉', '울새' 등과 같은 다양한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작품 전반에서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⑤ 이 소설에서 '나'는 점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점순의 행동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점순의 마음을 아는 독자에게 웃음을 자아낸다.
- 4 점순은 '나'에게 감자를 건네며 호감을 표시하지만 '나'가 이를 알아주지 않아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나'의 집 씨암탉을 못살게 군 것이다.
- 5 점순은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닭싸움을 붙이는 것으로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닭싸움은 점순과 '나'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6 '나'는 닭싸움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소문을 그대로 믿고, 닭에게 고추장만 먹이면 닭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수탉이 닭싸움에서 지자, 고추장을 적게 먹여서 그런 것이라는 착각한다. 이를 통해 '나'는 욕심 많고 영악한 사람이라기보다 순진하고 어수룩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7 (차)에서 점순은 자신의 수탉이 '나'의 수탉에게 반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불쾌해한다. 이를 드러내는 문장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기분이 언짢거나 괴롭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 있는 문장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8 '나'는 ㉠에서 어떤 일인지 자신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하자 기쁘고 통쾌함을 느끼지만, ㉡에서 점순네 수탉에게 당하자 실망하고 허탈해한다. ㉢에서 나무를 하러 가서도 닭을 걱정하던 '나'는 점순에게 분노가 치민다.
- 9 점순은 '나' 몰래 닭싸움을 즐기려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가 내려오는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나'의 수탉을 괴롭힌 것이다. 점순의 이러한 행동을 '나'는 자신을 약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 10 (하)에서는 '나'가 훗김에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과정이 드러나 있고, (거)~(너)에서는 집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하는 '나'에게 점순이 닭 죽은 것을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 점순은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로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의 차이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으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 역시 되고 있지 않다. ② '나'는 자꾸만 자기네 수탉을 괴롭히는 점순에게 화가 나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다. 그리고 이런 '나'의 행동을 본 점순이 어른들에게 '나'의 잘못을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된다. 즉 '나'의 행동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화해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③ '나'는 점순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순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④ 점순네 수탉과 '나'의 수탉이 싸우는 것 때문에 두 집안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 11 (노란) 동백꽃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나'와 점순 사이에 절정으로 무르익어 가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나'가 점순에게서 느낀 미묘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기본 다지기

056~063쪽

◆ 소나기 | 황순원

| 작품 설명 |

이 소설은 서울에서 이사 온 소녀와 순박한 사골 소년의 짧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소녀와 다르게 소녀에게 관심이 있지만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소년의 이야기가 서정적으로 펼쳐진다. 이후 함께 산 너머에 가게 되었다가 소나기를 만나면서 소년과 소녀의 사이가 가까워지지만 소녀가 소나기를 맞고 병으로 죽게 되면서 둘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다.

| 핵심 보기 |

소재의 상징적 의미

먹장구름	위기감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함.
소나기	소년과 소녀가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불행한 결말을 암시함.
우그러진 꽃뭉음	꽃은 소녀를 상징하며, 우그러진 꽃뭉음은 소녀의 죽음을 라는 불행한 결말을 암시함.
흰 조약돌	소녀와의 추억이 깃든 소재로, 소녀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마음을 드러냄.
얼룩진 분홍 스웨터	소년과 소녀의 소중한 추억을 상징함.
대추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을 상징함.
호두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을 상징함.

소재 발단 개울가 전개 산 위기 소나기 절정 소나기, 병 결말 죽음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비단조개 4 ○ 5 ○ 6 송아지 등에 올라타는 것 7 ○ 8 ○ 9 흰 조약돌 10 ○ 11 × 12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④ 2 ③ 3 ③ 4 ③ 5 ② 6 소나기 7 ⑤ 8 ③ 9 ④ 10 ④

핵심만 바로 체크

- (가)에서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중손녀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소년과 소녀가 개울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징검다리에서 소녀가 길을 비키기를 기다리던 소년은 다음 날에는 소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게 나왔다.
- (라)에서 소녀는 소년에게 조개의 이름을 물었고, 소년이 "비단조개."라고 답하며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 (바)에서 소녀는 소년을 따라 무를 먹어 보지만 세 입도 못 먹고 맴고 지리다며 집어 던진다. 소년은 소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소녀와 똑같이 행동한다.
- (사)에서 소년은 소녀를 좋아하는 마음에 싱싱한 꽃이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네고, 이런 소년의 정성을 고맙게 여긴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말한다.
- 소년은 누렁 송아지 등에 올라타는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 내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한다.
- 먹장구름은 '먹빛같이 시꺼먼 구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긴장감과 위기감을 조성한다. 또한 소나기를 맞게 된 소녀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소년과 소녀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원두막과 수숫단 속에서 함께 피하며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 이 소설의 '발단'에서 소녀는 소년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조약돌을 던진다. 소녀에게 관심이 있었던 소년은 그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었다. 둘이 소나기를 맞고 난 이후 며칠째 소녀가 보이지 않자 소년은 소녀를 생각하며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 (거)에서 소녀의 아버지인 윤 초시의 손자는 사업에 실패하여 고향에 돌아왔으며, 결국에는 고향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 (너)에서 소년은 소녀에게 병이 좀 낫거든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자책한다. 하지만 소녀가 소년에게 이사 가기 전에 만나자고 말했다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소년은 소녀가 다음 날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림길에서 소녀네 집이 있는 아래쪽으로 가 본다. 하지만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진 다음 날부터 소녀가 개울가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 토요일에 소년과 소녀는 개울가에서 다시 만났다고 하였다.
- (나)에서 소녀는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며 소년에게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다)에서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소녀가 보이지 않는 날에는 조약돌을 주무르는 소년의 행동 역시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과 호감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갈림길’은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소녀는 아래편으로, 소년은 위쪽으로 가야 하지만 소년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소녀가 소년에게 산 너머에 가 보자고 말하며 둘은 함께 길을 나서게 된다.

② ‘개울가’는 소년과 소녀가 처음 만난 장소이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년에게 관심을 표현하지만 소극적인 소년은 소녀를 피하기만 한다.

④ ‘비단조개’는 소년과 소녀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소재이다.

⑤ ‘징검다리’는 시골 마을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며, 소년과 소녀를 만나게 해 주는 소재이다.

3 ㉔은 소녀를 의식하면서도 의식하지 않는 척하는 소년의 소심한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4 소년은 개울가에 소녀가 보이지 않자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나, 소녀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되자 허전함을 느낀다.

오답풀이

①, ②, ④, ⑤ ‘발단’ 부분에서 소년은 소녀에게 말도 걸지 못하고, 눈이 마주치면 금방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함께 산 너머에 가게 되면서 소년은 소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거나, 꽃을 꺾어 소녀에게 건네고, 미끄러져 다친 소녀를 구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5 (바)에서 논이 끝난 길에 있는 도랑을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너고 이후 소년이 건넌 것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서술한 것일 뿐, 소년의 태도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6 농부가 말한 “소나기가 올라.”라는 말에서 ‘소나기’는 위기감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소년과 소녀의 산에서의 즐거운 시간이 전환되어 내용이 전개될 것임으로 짐작하게 한다.

7 삼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하고,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린 것,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와 우그러든 꽃 묶음은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한다. 그러나 도랑물이 불어 있는 것은 소년이 소녀를 업게 되는 계기일 뿐,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8 (하)에서 소년은 소나기를 맞고 앓아서 해쓱해진 소녀를 보고 걱정하지만, 그날의 일을 자책하거나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소년은 한동안 보이지 않던 소녀를 개울둑에서 발견하자 가슴부터 두근거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② 소년은 한동안 소녀가 보이지 않자 소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하고, 남몰래 오 학년 여자 반을 엿보기도 했다.

④, ⑤ 소녀는 진흙물이 든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보며, 소년과 함께 산에 놀러 갔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소년은 이러한 소녀의 말에 소녀를 업었던 일이 떠올라 부끄러워하고 있다.

9 ㉔은 떼뻗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보다 소녀를 위하는 마음이 앞선 소년의 행동이라 볼 수 있다.

10 소녀가 소년과 함께했던 날 입었던 분홍 스웨터는 소년과의 즐거운 추억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즉, 소녀가 자신이 죽으면 이 옷을 입혀 묻어 달라고 한 것은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이다.

DAY 1 소설

본문 064~071쪽

기본 다지기

064~066쪽

◆ 홍길동전 | 허균 지음, 김일렬 풀이

| 작품 설명 |

이 소설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서얼인 길동이 적서 차별 제도로 인하여 겪는 갈등과 그 갈등의 해결 과정을 그리고 있다.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서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길동이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모습을 통해 신분제에 따라 차별하던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갈등의 원인	갈등의 양상	
적자와 서얼을 차별하는 사회 제도	길동의 내적 갈등	호부호형과 입신양명을 원하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그럴 수 없음.
	길동과 홍 대감의 갈등	길동은 홍 대감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만, 홍 대감은 길동이 현실에 순응하기를 바람.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4 × 5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② 2 ④ 3 ⑤ 4 ⑤ 5 서얼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인물

핵심만 바로 체크

1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까닭은 길동의 신분이 서얼이기 때문이다.

2 홍 대감은 길동을 불쌍히 여기지만, 사회적인 관습과 신분제도 때문에 호부호형을 허락하지 않는다.

3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길동뿐이 아니라는 홍 대감의 말에서 길동이 살아가던 조선 시대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이 결정되어 차별을 겪는 서얼 출신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4 길동의 어머니는 길동의 결심을 응원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순응하도록 권유하였다.

- 5 이 글에서 길동이 겪는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서자'라는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다. 적서 차별은 길동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1 (가)에서 길동이 '충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백가지를 알 정도'인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고, (다)에서 길동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검술을 익힐 때 마침 달빛을 구경하던 흥 대감이 길동을 보게 되면서 우연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2 이 글에 드러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분 제도로 인한 적서 차별로, 길동은 자신의 이상과 이를 막는 신분의 한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흥 대감과도 갈등한다.
- 3 흥 대감은 길동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의 적서 차별 제도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동을 꾸짖고 있다.
- 4 길동 어머니는 “재상 집안에 천한 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의 간장을 태우느냐?”라고 하며 길동의 출가를 만류한다. 이는 길동 어머니가 적서 차별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인정하는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길동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받는 불합리한 차별에 저항하며 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개척하려는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5 길동이 언급한 장충의 아들 길산은 길동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이다. 길산의 사례를 통해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실력 쌓기

067~071쪽

- 01 ③ 02 ⑤ 03 ① 04 정직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내적 갈등하는 문기의 괴로움과 죄책감 05 ③ 06 ③
- 07 ③ 08 '나'는 처음에는 한아를 귀찮게 여기고, '혹'이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세면대를 고칠 때 냄새를 참아가며 의리를 지키는 한아를 보며 자신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 09 ① 10 ④ 11 ⑤ 12 ③ 13 ② 14 ④
- 15 소녀의 죽음 16 ① 17 ④ 18 ①

- 01 (가)에서 문기는 지금껏 애써 외면하며 수만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합리화하려던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

- 02 (다)에서 문기는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자신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문기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3 (나)에서 문기는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불장 안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준다. '두 번째 허물'이란 바로 이러한 문기의 잘못을 의미한다.

- 04 (라)에 제시된 '하늘'은 문기의 마음과 대조되는 대상으로, 문기가 회복하고 싶은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상징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제목 '하늘은 맑건만'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하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문기의 죄책감을 나타낸다.

- 05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주인공인 '나'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험한 내면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을 뿐,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집에 엄마가 없는 사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가)에서 '나'는 한아를 귀찮게 여겼으나, (다)에서 한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아를 대견하게 여기고 있다.

④ 이 글은 소설 속 주인공인 '나'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⑤ '나'는 막힌 세면대를 직접 고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다.

- 06 ㉠에서 '나'는 집에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막막함을 느끼지만, ㉡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한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 07 (라)에서 '나'는 망키 스패너를 쥐면 자신의 손아귀의 힘이 몇 배로 커지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망키 스패너'는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 08 (가)에서 '나'는 한아를 혹처럼 여기며 한아가 아기 취급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에서 '나'는 한아와 함께 막힌 세면대 문제를 고치면서, 한아를 더 이상 아기가 아닌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 09 이 글은 현재(오늘)에서 과거(나흘 전)의 사건을 서술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10 점순은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감자를 건네며 '나'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에 반해, '나'는 점순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눈치 없고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 점순은 '나'에게 감자를 전해 주고 싶지만, 자신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리고 싶지 않아 생색을 내듯 말을 한다. 이로 인해 '나'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 점순의 호의를 거절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 '나'에게 ㉠과 같이 말하며 감자를 내미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전해 줌으로써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점순이 '나'의 가난을 놀리려고 하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점순이 ㉠과 같이 말한 것은 자기 집의 감자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자를 주어 먹이려고 한 것이다.

③ 이 글에서 점순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가 점순이 내민 감자를 거절한 것은, 감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점순의 생색내는 듯한 말투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점순 역시 '나'를 괴롭히기 위해 감자를 내밀며 ㉠과 같이 말한 것이 아니다.

12 이 글은 소설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소설의 일부분에서 등장인물인 '소년'의 심리까지 서술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소년'이 자신의 경험과 심리를 서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소설은 소년과 소녀가 처음 만난 날부터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② 이 소설은 수식이나 묘사가 많지 않은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장으로 서술되었다.

④ 이 소설은 시골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소설 속에 '개울가', '징검다리', '갈꽃' 등 향토적인 정서가 드러나는 공간과 소재가 주로 등장한다.

⑤ '조약돌', '분홍 스웨터' 등의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13 이 글은 소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결말' 부분에서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 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구……."와 같이 생략법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남기고, 동시에 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암시하면서 여운을 준다.

14 이 글의 제목인 '소나기'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로, '갑자기 찾아와 짧게 끝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의미한다.

15 이 글에서는 소녀를 꽃에 비유하고 있으며 ㉠은 소녀에게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다)에서 소년의 부모가 나누는 대화 중 '악상'은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사람의 초상을 뜻하는 단어로 소녀의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소녀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16 (나)에서 길동은 서얼로 태어나 입신양명할 수 없고,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즉, 갈등의 원인은 적서 차별 제도이고, 이로 인해 길동은 자신의 이상과 이를 막는 신분의 한계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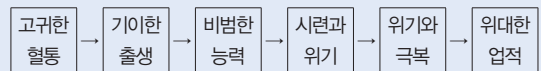
17 (다)에서 흥 대감은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여 서러워하는 길동을 마음속으로는 불쌍히 여겼지만, 길동의 마음을 받아 주고 이를 위로하면 길동이 방자해질까 봐 일부터 길동을 크게 꾸짖었다.

18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영웅이 겪는 전형적인 이야기 전개를 뜻하며, 흥길동전도 이러한 서사적 특징을 따른다. ㉠은 어린 시절 길동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보충 자료

영웅의 일대기 구성

영웅적 인물의 출생, 성장, 활동, 사망까지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구성으로 고전 소설에서 흔히 나타난다. 영웅은 주로 고귀한 혈통을 지녔고, 기이하게 태어났으며, 비범한 재주와 능력을 갖췄고, 고난과 시련에 처한 뒤에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단계를 거친다.



기본 다지기

074~075쪽

◆ 열보다 큰 아홉 | 이문구

| 작품 설명 |

이 수필은 우리 조상들이 아홉이라는 숫자를 사랑한 까닭을 설명하면서 꼭 차지 않은, 무한한 꿈과 가능성의 수인 아홉을 청소년에 대응시키고 있다. 글쓴이는 숫자 열과 아홉을 대조하면서 아홉이라는 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도록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열	아홉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 성공을 한 수	열보다 하나가 모자란 수, 완전하지 않은 수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이룬 어른과 같은 수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과 같은 수

소주제 처음 열, 아홉 중간 존재 끝 아홉, 청소년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열, 아홉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① 2 ① 3 ④

핵심만 바로 체크

- (가)에서 글쓴이는 우리나라에서 아홉 구 자가 두 번 든 중앙절을 천 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쇠어 온 것을 예로 들며 선조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고 하였다.
- (나)에서 글쓴이는 우리 선조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까닭을 모든 일에 완벽함이나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라)의 첫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는 열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어른과 같고, 아홉은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청소년과 같은 수라고 하였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가)에서 글쓴이가 중앙절, 중구날 등의 예를 들어 우리 선조들이 열보다 아홉을 사랑했음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일화를 나열한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이 글에서 글쓴이는 숫자 '열'과 '아홉'에 담긴 의미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나)에서 글쓴이는 선조들이 아홉이라는 수를 사랑한 까닭에 대

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표현법을 활용하며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④ (라)에서 글쓴이는 '열'과 '아홉'을 각각 어른과 청소년에 비유하며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불완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관용 표현을 인용하고 있다.

2 (다)에서 글쓴이는 아무리 대단한 기록이라도 결국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뜻의 관용 표현을 인용하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타고난 동시에 불완전한 존재로 완전한 인간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3 이 글의 글쓴이는 꼭 차지 전 가능성의 수인 아홉을 청소년에 대응시키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아홉이라는 숫자처럼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기임을 일깨우고자 이 글을 쓴 것이다.

기본 다지기

076~077쪽

◆ 관참아 | 장영희

| 작품 설명 |

이 수필은 다리가 불편한 글쓴이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여 쓴 글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경험을 담고 있다. 몸이 불편하여 놀이에 질 수 없었던 글쓴이에게 역할을 만들어 주던 친구들의 배려와 깨끗 장수 아저씨에게 들은 "관참아."라는 말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관참아.'라는 말의 의미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용서의 말, 격려의 말, 나눔의 말, 부추의 말, 희망의 말이라고 정리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글쓴이의 경험	-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나'를 배려했던 일 - 깨끗 장수에게 "관참아."라는 말을 들었던 일	-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드러냄. - 자신의 경험과 보고 들은 일화를 통해 일상적인 말인 "관참아."의 의미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
글쓴이의 깨달음	세상은 살 만한 곳이며, 선의와 사랑,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게 됨.	

소주제 처음 배려 중간 관참아 끝 의미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② 2 세상은 선의와 사랑이 있고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살 만한 곳이다.

핵심만 바로 체크

- 1 (가)와 (마)의 첫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는 과거 초등학교 시절 자신이 겪은 일을 회상하며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다)~(바)에서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자신을 배려하는 친구들과,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말해 준 깨엿 장수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1 이 글에 나타나는 “괜찮아.”라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용서의 말, 격려의 말, 나눔의 말, 부추의 말, 희망의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더 잘해라’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로, 이 글에 나타나는 ‘괜찮아’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 2 (바)에서 글쓴이는 깨엿 장수가 말한 “괜찮아.”라는 말의 의미를 떠올리며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세상이 선의와 사랑이 있고,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실력 쌓기

078~079쪽

- 01 ② 02 ⑤ 03 ⑤ 04 청소년과 숫자 아홉은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05 ② 06 ⑤ 07 ④
- 08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

- 01 (다)에서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관용 표현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인용한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라)에서 중학생을 직접 언급하며 아홉이라는 수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예상 독자로 한 글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은 수필로, 아홉과 열에 대한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열’과 ‘아홉’이라는 수에 각각 ‘어른(이룰 것을 완전히 이룩한 존재)’과 ‘청소년(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⑤ (라)의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 온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에서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꾸어 이야기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와 글의 주제를 강조하였다.

- 02 (다)에서 글쓴이는 모든 기록이 깨어지기 마련인 것을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로 생각하며, 변화와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03 이 글에서 말하는 ‘아홉’은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수이다.

- 04 (라)에서 글쓴이는 청소년을 숫자 ‘아홉’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청소년과 ‘아홉’은 꼭 차기 전, 부족하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05 이 글은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던 일, 옛장수 아저씨와 관련된 일화, “괜찮아.”라는 말로 친구를 배려한 어느 가수의 일화 등 여러 일화를 등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글쓴이가 일상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수필이다. 수필은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 아니며,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③ 이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것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수필에 해당한다. 이 글에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것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④ 이 글은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은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06 (가)에서 글쓴이는 다리가 불편해 놀이에 갈 수 없는 자신을 배려하여 역할을 만들어 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07 “괜찮아.”라는 말은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괜찮아.”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이 핵심이므로 ④와 같은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08 목발을 옆에 두고 앉아 있는 ‘나’에게 깨엿 장수 아저씨가 한 말이므로, (다)에 열거된 “괜찮아.”의 의미 중에서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가장 가깝다.

II 읽기

DAY 10 설명하는 글 + 요약하며 읽기

본문 082~087쪽

기본 다지기

086~087쪽

◆ 아름다운 별뚱별의 비밀 | 이비에스(EBS) 오디오 콘텐츠 팀

| 지문 설명 |

이 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뚱별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다. 별뚱별의 정체가 무엇인지, 평소 별뚱별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별뚱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유성우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별뚱별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인식을 나라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별뚱별	•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가 중력에 의해 지구로 떨어질 때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임. • 햇빛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볼 수 있음. • 대부분 1초 사이에 순식간에 떨어져 육안으로 보기 어려움.
유성우	• 별뚱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임. • 우주 먼지들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임.

별뚱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별뚱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별뚱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김. 예 우리나라, 일본, 칠레, 필리핀	별뚱별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김. 예 유럽, 고대 그리스, 고대 동양

소주제 처음 별뚱별 중간 유성우 끝 눈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④ 2 평상시에 낮에는 별뚱별의 빛보다 태양 빛이 훨씬 밝기 때문에 보기 어려우며, 늦은 밤이나 새벽에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별뚱별이 총알보다도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핵심만 바로 체크

- 이 글은 '처음-중간-끝'의 구조로 이루어진 설명하는 글에 해당하므로 중심 소재인 '별뚱별'과 그와 관련한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 (나)에서 우리가 보는 별뚱별은 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칠레, 일본, 필리핀에서는 별뚱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 왔으나 유럽에서는 별뚱별이 위

험한 시기를 암시하는 징조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여겨왔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중간 부분에서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 대상인 별뚱별과 유성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상의 특징을 간략히 서술하여 내용을 강조하는 단계는 끝 부분이다.
- (다)에서는 우리가 별뚱별을 쉽게 볼 수 없는 두 가지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낮에는 별뚱별의 빛보다 태양 빛이 훨씬 밝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별뚱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며, 별뚱별은 대부분 1초 사이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다.

DAY 11 설명하는 글 + 요약하며 읽기

본문 088~089쪽

기본 다지기

088~089쪽

◆ 인공지능은 어떻게 똑똑해졌을까? | 김대식

| 지문 설명 |

이 글은 인공지능 연구에 딥러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과 유사하게 학습하고 사고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다양한 딥러닝 학습법의 종류와 이에 따라 발전한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딥러닝 학습법	지도 학습	• 정답이 함께 제공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 • 지도 학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함.
	비지도 학습	• 정답이 제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 •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방식이지만 가장 어려운 방식임.
	보상 학습	• 컴퓨터가 답을 말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 ×로 알려 주는 방식 • 틀렸을 경우 답을 맞을 때까지 도와줌.

소주제 처음 인공지능, 딥러닝 중간 학습법 끝 이해, 활용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② 2 ①

핵심만 바로 체크

-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설명하는 대상 및 그와 관련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 딥러닝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인 초기의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지 못하고, 사람이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했다.
- (나)~(라)에서 딥러닝 학습법은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보상 학습’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은 모두 딥러닝 학습법에 해당한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글을 요약하며 읽을 때에는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에 따라 글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선정하는 것은 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는 볼 수 없다.
- (마), (바)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문단이다. 구체적인 사례의 나열을 중심으로 문단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요약할 때 시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DAY 12 설명하는 글 + 추론하며 읽기

본문 090~093쪽

기본 다지기

090~093쪽

◆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 | 공구택

| 지문 설명 |

이 글은 작은 자극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끄는 넋지 효과를 다룬 글이다.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기존의 해결 방법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
- 규제나 단속, 감시 도구 등을 활용함.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대부분임.	-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함. - 작은 자극을 주어 은근하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함.
결과	결과
-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함. -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함. -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끔.

소주제 처음 담벼락 쓰레기 중간 넋지, 넋지 끝 창의적인

핵심만 바로 체크 1 X 2 화단 조성 3 X 4 O 5 빠르게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③ 2 화장지를 낭비하면 숲이 사라진다. 3 ④ 4 ② 5 ③

핵심만 바로 체크

- 글을 추론하며 읽을 때에는 글에 나타난 정보뿐만 아니라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등도 활용할 수 있다.
- (가)~(라)에 따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호소문보다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해 꽃을 심는 것이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었다.
- 글쓴이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생략하기도 하므로 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생략된 내용도 추론해야 한다.
- 추론하며 읽기를 할 때에는 기존에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
- (카)에서 점점 간격을 좁혀서 흰색 가로선을 그리면 운전자는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로 다 속도를 더 빠르게 느낀다고 하였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인상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 것’으로, 주로 어떠한 행동이나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쓰인다.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을 떠올려 보았을 때 글쓴이는 넋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담벼락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문단을 끝내고, (나)~(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에 대한 답이 이어지고 있다.
 ② (나)에서 문제를 해결한 방법보다 담벼락 앞에 쓰레기가 없어졌다는 결과를 먼저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④ ‘은근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 등이 함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은밀하다.’로, 겉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작은 자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넋지 효과의 특성을 드러낸다.
 ⑤ 사람들의 계산 이용률이 66퍼센트나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넋지 효과를 활용한 방법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 (아)에서는 남미 지도 모양이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의 화장지를 뽑아 쓸 때마다 초록색 부분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과 아마존이 지닌 상징성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화장지

를 낭비하면 숲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3 (자)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던 부산의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가)에서 넋지 효과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4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넋지 효과를 활용한 창의적인 방법과는 대조되는 기존의 해결 방법을 가리킨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넋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에서 ‘천 마디 잔소리’는 기존의 해결 방법을, ‘부드러운 메시지’는 넋지 효과를 의미한다. 글쓴이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만 바로 체크

- (다)에서 옷을 생산할 때와 옷을 소각할 때 모두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하였다.
- (나)에서 목화밭에 농약을 뿌리는 과정에서 토양과 공기가 오염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이 과정에서 수질 오염이 일어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이 글에서는 소재목을 활용하여 앞으로 전개될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을 추론하며 읽을 때 소재목을 활용할 수 있다.
- (사)에 따르면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재활용 섬유를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 (바)에서 유기농 면은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가 계속해서 구매하기 쉽지 않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나)에 따르면 지구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옷의 양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옷의 양이 1,000억 벌이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버려진 옷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독한 화학 성분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결국 그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간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농약의 10퍼센트, 살충제의 25퍼센트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옷을 생산할 때와 소각할 때 모두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퍼센트를 의류 산업이 차지한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는 약 7천 리터의 물을 사용되며, 물 7천 리터는 우리나라 4인 가족이 5~6일 동안이나 쓸 수 있는 양임을 알 수 있다.
- ㉠에는 의류 폐기물의 양은 매우 많은 것에 비해, 재활용되는 옷의 비율은 매우 적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글쓴이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옷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글의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은 글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능동적으로 읽는 행위이므로 글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글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요약하며 읽기’의 효과에 해당한다.
- (바)~(사)에서 글쓴이는 친환경 섬유나 재활용 섬유가 의류 산업의 환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유기농 면이 환경 오염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활용

DAY 13 주장하는 글 + 추론하며 읽기

본문 094~101쪽

기본 다지기

094~097쪽

◆ 내가 버린 옷은 어디로 갈까 | 이주은

| 지문 설명 |

이 글은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소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글쓴이는 옷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며 옷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	옷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	옷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버려지기 때 문임.
		해결 방안	옷을 사기 전에 그 구매가 우리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함.

소주제 **서론** 환경 오염 **본론** 옷 **결론** 환경 문제, 소비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4 재활용 섬유 5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② 2 ② 3 ③ 4 ② 5 ⑤

섬유는 세탁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여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5 (아)에서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주장을 추론할 수 있다. 글쓴이는 소비자가 옷과 같은 물건을 살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적 쌓기

098~101쪽

01 ③ 02 ⑤ 03 (나), (다) / 사람들은 별뿔별을 소원을 이루어 주는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불운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기도 했다. 04 ⑤ 05 ② 06 ⑤
07 ⑤ 08 ③ 09 ⑤ 10 ② 11 ① 12 ②
13 면의 원료인 목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농약과 살충제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 01 (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뿔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여겨, 떨어지는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별뿔별을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라)에서 별뿔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우주를 떠돌던 먼지가 불타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별뿔별을 위대한 존재의 종말과 연관 지어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일본에서는 별뿔별이 사라지기 전에 소원을 세 번 말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⑤ (다)에서 고대 동양에서는 사람마다 자신의 별이 있다고 믿었으며, 별뿔별이 떨어지면 큰 인물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02 (라)는 글쓴이의 제안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뉴스에서 유성우가 내린다는 소식을 전하면 별뿔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어떨까.'라는 중심 문장이 글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 03 <보기>의 읽기 목적은 별뿔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별뿔별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는 (나), (다)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각 문단에서 이와 관련된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도록 한다.

- 04 '끝' 부분에서는 인공 지능의 발전에 대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태도의 필요성을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인공 지능의 발전이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문단은 (가)로, '인공 지능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가)에서 초기의 인공 지능 연구는 사람이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딥러닝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공 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며 둘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문단은 (나)~(다)로, 인공 지능이 예술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문단은 (라)로, 인공 지능의 발전에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당부하며 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 05 (다)에서 인공 지능에게 특정 화가의 작품을 계속 학습시키면 그 작가만의 특징을 살려 그림을 그려 낸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초기 인공 지능 연구에서는 사람이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딥러닝 기술이 인공 지능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가)와 (라)에서 찾을 수 있다.

④ (나)에서 인공 지능이 사람의 언어를 처리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 기술 중 하나로 챗봇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⑤ (라)에서 인공 지능이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06 (가)에는 뚜렷한 하나의 중심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는 인공 지능 연구에 딥러닝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들어 요약하였다.

- 07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낯지 효과와 그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피아노 계단'을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② (나)에서 피아노 계단을 설치한 후 사람들의 계단 이용률이 66퍼센트나 늘었다고 제시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해결 방법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각 사례마다 문제 상황에 대한 기존의 해결 방법과 낯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피아노 계단을 설치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라)에서는 남미 지도 모양의 화장지 케이스를 설치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화장지를 아껴 쓰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08 주어진 내용은 소제목, 접속어, 단어의 의미, 문장 간의 관계와 같은 글에 제시된 정보가 아니라, 공익 캠페인이 주로 공적인 영역을 다루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독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다.

09 글쓴이는 피아노 계단과 화장지 케이스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용하거나 화장지를 아껴 쓰도록 자연스럽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 (다)에서 합성 섬유는 대부분 석유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이 글을 읽고 ‘합성 섬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한 해 동안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나, 의류 수거함에 매년 몇 벌의 옷이 버려지는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다)에서 옷을 만들 때 쓰이는 섬유의 종류와 각 섬유가 옷의 생산 및 소각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각 섬유의 장단점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가)에서 사람들이 쉽게 옷을 사고 버린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옷을 사는 평균적인 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⑤ (다)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9,200만 톤의 의류 폐기물이 쏟아진다고 하였으나,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옷을 폐기하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11 ①의 앞부분에서는 옷이 만들어질 때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①에서는 옷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으므로,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옷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12 (가)에서는 화제와 관련하여 독자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또 (나)~(다)에서는 옷을 만들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어 글쓴이가 주장하려는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나. ‘주범’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결과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뜻으로, 주로 어떠한 대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옷이 버려지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르. (다)에서 글쓴이는 옷을 생산할 때와 소각할 때 모두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의류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의류 산업이 환경 오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이 글에서는 천연 섬유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예로, 대표적인 천연 섬유이자 면의 원료인 목화를 제시하고 있다. 목화의 생산 과정에서 매년 전 세계 농약의 10퍼센트, 살충제의 25퍼센트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듣기·말하기

DAY 14 담화

본문 106~109쪽

기본 다지기

108~109쪽

◆ 10대가 말한다 | 신유진

| 담화 설명 |

이 담화는 종합 격투기 프로 선수라는 꿈을 이룬 학생이 권투를 배우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을 다룬 연설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사랑하며 마음에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전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화자의 관점 변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에는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했으나,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된 후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겨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음.
화자의 가치관	마음의 근육을 만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

→ 연설 담화는 화자의 관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④ 2 ③ 3 권투가 시련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꼈다.

핵심만 바로 체크

- 1 ‘나’는 자신이 종합 격투기 프로 선수이고, 열다섯 살에 최연소로 데뷔 경기를 치르고 우승을 거두었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종합 격투기 프로 선수인지는 알 수 없다.
- 2 (나)에서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또래보다 유독 활발하게 행동하였고, 친구들은 그런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라)에서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기에, 시합 직후에 짙은 눈물 콧물 범벅인 사진을 ‘인생 사진’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1 이 담화는 설득 담화의 하나인 연설로, 연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여 듣는 이를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말하기이다.

- 2 (마)에서 '나'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면 마음의 근육이 더 강하고 단단해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 3 화자는 권투를 통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권투가 화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제시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DAY 15 담화

본문 110~113쪽

기본 다지기

110~111쪽

◆ 우리 결의 옛 그림 관찰하기 | 김소연

| 담화 설명 |

이 담화는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을 통해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과 예술성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옛 그림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내용을 담은 강연이다. 화자는 단순히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을 넘어 그림 속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학생들 스스로 옛 그림을 세밀하게 감상하며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포도」 그림의 특징	• 먹색 하나로 모든 열매의 농도를 각기 다르게 표현함. • 포도나무의 가지마다 색깔이 다른 것을 표현함. • 덧칠을 하지 않으면서 대상을 생생하게 그림.
화자의 가치관	옛 그림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음.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 3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④ 2 ③

핵심만 바로 체크

- 1 (나)에서 오늘 감상할 조선 시대 예술가의 그림은 오만 원권 지폐에 그려진 인물인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였다.
- 2 (라)에서 「포도」 그림은 여러 색을 사용하지 않고 먹으로만 그린 그림이라고 하였다.
- 3 (마)에서 「포도」 그림의 포도송이가 맺힌 가지들을 훨씬 진한 먹으로 그린 것은 새로 자란 푸른 가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1 이 강연에서 화자는 청중에게 옛 그림을 감상할 때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관찰을 통해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2 (다)~(마)에서 「포도」 그림의 특징을 통해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을 설명한 것에서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실력 쌓기

112~113쪽

- 01 ④ 02 ④ 03 ⑤ 04 '마음의 근육'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사랑하게 된 마음을 의미한다.
- 05 ④ 06 ② 07 화자는 신사임당이 포도를 세밀하게 관찰한 것을 반복해서 설명함으로써 옛 그림을 감상할 때 세밀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01 이 담화는 설득 담화의 하나인 연설로, 연설을 들을 때에는 화자의 관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 02 (나)에서 화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수시로 찾아왔다고 하였으므로, 힘든 훈련을 하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보통의 토래보다 유독 활발하게 행동했다고 하였다.
- ② (나)에서 화자가 열다섯 살에 최연소로 데뷔 경기를 치르고 우승까지 거둔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 화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기력하게 되어 외모 콤플렉스까지 생겼다고 하였다.
- ⑤ (다)에서 화자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 데뷔 경기 이후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보아도 이제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 03 ㉠과 ㉡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은 직접적인 언어 표현은 아니지만 언어 표현에 덧붙여 의미를 전달한다.
- 04 (다)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보아도 개의치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 05 이 강연은 「포도」 그림에 나타난 신사임당의 세밀한 관찰력과 예술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설명에 따라 「포도」 그림의 세부적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과 「포도」 그림을 비교하며 듣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강연의 목적은 신사임당의 예술적 감각이 세밀한 관찰을 통해 어떻게 「포도」 그림에 표현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신사임당의 예술적 감각에만 집중하며 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는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을 통해 옛 그림을 감상할 때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가)에서 오만 원권의 앞면에서 「포도」 그림이 실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포도」 그림은 원래 여러 색을 사용하지 않고 먹으로만 그린 작품이라고 하였으므로, 오만 원권의 앞면에 「포도」 그림의 원본이 그대로 실려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신사임당이 한 번 붓이 지나간 곳에는 다시 덧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포도송이가 맺힌 가지들은 훨씬 진한 먹으로 그렸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곧게 내리그은 가지와 용수철 모양의 덩굴손이 조화로운 곡선을 만들어 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포도」 그림은 먹으로만 그렸는데도 마치 여러 빛깔을 사용한 것처럼 열매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듯 생생하다고 하였다.

07 이 강연에서 화자는 「포도」 그림에서 신사임당이 포도의 생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여 표현하였음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옛 그림을 감상할 때 세밀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보기

토의 주제와 토의자 소개	• 주제: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 토의자: 서연, 은우, 지아
토의자의 제안	• 서연: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 • 은우: 선착순으로 정하자. • 지아: 추첨으로 정하자.
토의자 간 의견 교환	서연, 은우, 지아가 각자의 제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함.
청중과의 질의응답	은서, 하윤, 유찬은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서연, 은우, 지아는 이에 답변함.
토의 마무리	추첨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로 함.

핵심만 바로 체크 1 × 2 모둠, 선착순, 추첨 3 서연 4 (2) ○ (4) ○ 5 서연 6 공평, 상황 7 ○

실전으로 바로 연습 1 ④ 2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한다. 3 ⑤ 4 ④ 5 ④ 6 ③ 7 ③ 8 ⑤

핵심만 바로 체크

- 1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서 토의 유형과 토의에서 말을 역할을 정하고, 토의 내용을 마련한다.
- 2 (라)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서연, 은우, 지아의 제안을 알 수 있다.
- 3 서연이 은우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며 올바르게 않은 토의 태도를 보이자, 민준(사회자)은 서연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하였다.
- 4 (마)에서 사회자는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토의 순서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며, 토의자 간의 의견 충돌을 조정하여 원만한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5 (바)에서 서연은 은서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제안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다.
- 6 (바)에서 은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7 (사)에서 민준(사회자)은 자리를 바꾸는 방법에 관한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토의 안전을 안내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실전으로 바로 연습

- 1 (나)에서 토의 참여자들은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

DAY 16 토의

본문 114~123쪽

기본 다지기

116~121쪽

◆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 답화 설명 |

이 답화는 민준과 학급 친구들이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토의이다. 이 토의 답화를 보면서 토의 주제와 토의 방식, 역할 등을 정한 후에 토의를 진행하면서 협력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패널 토의’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오늘은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토의하겠습니다. 토의자로 선정된 분은 서연, 은우, 지아 학생입니다.”에서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있으며, “먼저 세 분의 토의자가 각각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자 간 의견을 나눈 뒤에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에서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3 은우는 자신의 제안에 대하여 지아가 제기한 문제점을 수용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마)에서 토의자들은 토의 주제에 관한 각자의 제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5 ‘자리를 추천으로 정하면 긴장감을 조성하여 재미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추천의 장점으로, 추천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과 관련이 없다. ㉠에 대해 지아는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자리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6 이 토의에서 청중은 앞서 토의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다. 이때 청중이 질문한 내용은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7 (사)에서 민준(사회자)은 이 토의를 통해 추천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였다.

8 서연은 은서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혹시라도 마음을 다치는 친구가 생길 수 있다면 자신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였다.

실력 쌓기

122~123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⑤ 05 ④ 06 서연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지아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01 (나)에서 토의자 간 의견을 나눈 뒤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토의의 유형은 패널 토의임을 알 수 있다. 패널 토의에서는 토의자와 청중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며, 토의자 간 의견 교환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 주로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강연식으로 발표한 뒤 청중의 질문에 응답하는 토의 유형은 심포지엄이다.

02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 소통 과정이므로 ③과 같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주제는 토의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03 (마)에서 지아는 “서연 학생과 은우 학생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토의자인 서연과 은우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4 토의는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보충 자료

토의와 토론의 차이

	토의	토론
목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주장과 설득을 통한 문제 해결
담화 방법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주장 제시
상호 관계	상호 협력적	상호 경쟁적
핵심 사고력	문제 해결적·협력적 사고	논리적·비판적 사고

05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마음을 다치는 친구가 생길 수 있다면 그 의견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한 사람은 (나)의 서연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은우는 반 친구들이 학교에 오는 순서가 꼭 집까지의 거리와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지아는 학교에 먼저 온 친구가 친한 친구와 앉고 싶어서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③ (가)에서 서연은 선착순으로 원하는 자리에 앉을 경우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은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에게 선착순의 방법을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다)에서 서연은 일정 기간마다 자리를 바꾸어 학생의 불편함이 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06 서연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 반면, 지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실력 쌓기

126~127쪽

- 01 ⑤ 02 ④ 03 ① 04 ⑤ 05 ④
 06 듣는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친구 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한다. 07 ③ 08 ⑤ 09 ④ 10 ⑤ 11 ②

- 01 언어폭력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문자 서비스 등의 가상 공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 02 상대를 차별하는 말, 비속어나 욕설 및 헐뜯,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은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 자기를 격려하는 말과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는 말은 모두 긍정적인 언어 사용에 해당하며, 언어폭력과 관련이 없다.
- 03 <보기>의 촌티, 병어리장갑, 편부모는 성별, 장애, 외모 등을 이유로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담은 말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다만 비속어에 해당하는 표현은 아니다.
- 촌티: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외모나 행동 등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
 - 병어리장갑: 신체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
 - 편부모: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일반화하여 비하하는 표현으로, 가정 환경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다.
- 04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05 평소 친구들과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언어폭력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 06 <보기>는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고, 친구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궁극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킨다.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 07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08 가상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 09 모든 비판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비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상대의 성장을 돕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난이나 감정적인 언어로 전달된 비판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처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 10 상대를 존중하는 말하기를 할 때에는 표정과 몸짓, 자세도 함께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말과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표정이나 몸짓, 자세 등을 통해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이 표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11 ㉠은 '너 전달법', ㉡은 '나 전달법'에 해당한다. '너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 행동에 대해 비난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 '나 전달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바람을 적절히 전달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IV 쓰기

DAY 18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본문 130~135쪽

실력 쌓기

132~135쪽

◆ 탐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 | 김지원

| 담화 설명 |

이 글은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를 지켜본 지원의 경험을 담은 글이다. 택배원인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여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며, 택배를 배달하는 아빠를 보며 느낀 안타까움과 존경심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진솔한 표현	• 까칠하고 물기 하나 없는 그 하루를 살피고 있으면 괜히 살이 배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 아빠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속상했다. • 아빠의 몸 어딘가에 택배와 관련된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았다. • 나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물었다.
효과	택배원인 아빠를 지켜보며 느낀 안타까움과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를 향한 존경심이 드러남.
비유적 표현	제목 「탐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
효과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산타에 빗대어 아빠를 표현함으로써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드러냄.

◆ 선물

| 담화 설명 |

이 글은 글쓴이가 아버지에게 선물로 강아지를 받은 경험을 담은 글이다. 식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낯설게 느꼈던 강아지를 밤새 돌보면서, 강아지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 글쓴이의 정서 변화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글쓴이의 경험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은 강아지를 보살피느라 밤을 새움.
글쓴이의 정서	강아지를 돌본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연민의 감정을 느낌.

- 01 ③ 02 ③ 03 ③ 04 ③ 05 ② 06 ②
- 07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산타처럼 자신도 소중한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책임지고 전해 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08 ③ 09 ④ 10 ⑤
- 11 ④ 12 글쓴이는 처음에는 강아지에 대한 무관심과 예상치 못한 선물에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강아지를 “낯선 것”이라 불렀지만, 이후 강아지에게 관심과 연민이 생기면서 ‘선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 13 ⑤ 14 ④ 15 ② 16 ⑤

01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과정은 글감을 떠올리는 ‘계획하기’ 단계, 글감으로 정한 경험을 구체화하여 글로 쓸 내용을 생성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 어떠한 순서로 내용을 배치할지 결정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써 보는 ‘표현하기’ 단계,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하는 ‘고쳐쓰기’ 단계를 거친다.

02 이 글에서 아빠가 배송을 끝내고 차에 타자마자 비가 그쳤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3 아빠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두꺼운 상자로 포장된 물건이 비에 젖을까 봐 상자를 몸 가까이 바싹 쥐고 주소를 찾고 있다. 이때의 ‘아빠의 손’은 자신의 일을 그르치지 않고 잘 수행하려는 아빠의 책임감과 열정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은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려는 아빠의 모습을 나타낼 뿐,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여유나 자신의 고집대로만 하려는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④ ⑤은 자신의 일을 잘 완수하려는 아빠의 모습을 나타낼 뿐, 이를 통해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고단함이나 힘겨움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⑤ ⑤은 비를 맞으면서도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아빠의 모습을 나타낼 뿐,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는 관련성이 적다.

04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삶과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의미를 담은 글이므로 지식의 확장과는 거리가 멀다.

05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겪었던 인상적인 경험들을 떠올리고, 그중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감을 선택해야 한다.

오답 풀이 ㉠ 글로 쓸 내용을 조직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감정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표현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6 (나)에서 아빠는 택배에 관한 것이라면 상황을 대부분 기억할 정도로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7 (다)에서 아빠는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나’의 동생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의 모습은 마치 선물을 전하는 산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08 (가)에서 ‘나’는 아빠가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고 가져온 결과물인 운송장을 교복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뽀뽀하고 구김 없이 퍼지기를 바라며 운송장을 맡겼다. 이러한 ‘나’의 행동은 아빠를 향한 애뜻한 마음과 아빠의 노력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09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경험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며,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10 이 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로, 글쓴이는 아버지에게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던 경험과 이를 통해 느낀 점을 담담하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11 이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중심 내용은 어느 날 아버지가 ‘나’에게 강아지를 선물로 주신 일이다.

12 식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글쓴이는 처음 아버지에게서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후 강아지에게 관심과 연민이 생기면서 강아지를 부르는 명칭도 ‘선물’로 바뀌게 되었다.

13 (라)에서 글쓴이는 갹갹거리는 강아지에게 백설기와 물을 선물했으나, 강아지가 관심을 갖지 않자 무시를 당했다고 느껴 화가 났다. 그러나 (마)에서 글쓴이는 강아지가 원하는 것이 쓰다듬어 주는 행동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대상과 소통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14 (나)에서 ‘나’는 선물로 받은 강아지를 처치 곤란하고 낯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선물을 건네면서 “이건 네(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선물은 가족 모두가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아버지는 점퍼 속에 넣어 온 강아지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③ (다)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가 겨울밤이었고 아버지에게서 술 냄새가 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선물은 서울이라는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으로 전학 온 ‘나’에게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15 (라)에서 ‘나’는 강아지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으로 알고, 자신이 아껴 먹다 남겨 둔 백설기를 강아지에게 주며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16 ㉠~㉣는 모두 아버지가 글쓴이에게 선물해 준 강아지를 가리킨다. 반면 ㉤는 글쓴이가 강아지에게 준 백설기와 물을 의미한다.

DAY 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본문 136~139쪽

실력 쌓기

137~139쪽

◆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 바르게 알기

| 담화 설명 |

이 글은 독도의 지리와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이다.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의 정확한 위치, 독도에 가는 방법, 독도의 자원 및 지질학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앞으로 독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독도의 위치와 독도의 전체 모습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는 섬으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음. - 동도와 서도를 비롯해 89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짐.
독도에 가는 방법	- 동도에 한해서 관광을 허용하고 있음. -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걸림.
독도의 자원 가치	- 다양한 수산 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함. -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함.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 화산섬으로, 화산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 - 다양한 암석과 지형, 독도 특유의 지질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음.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⑤ 06 ⑤
07 ① 08 ④ 09 ③ 10 독자가 독도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앞으로 독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 11 ④ 12 ④ 13 ②

01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그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비교하며 배경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02 (나)에서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비롯하여 주변에 딸린 89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독도는 동도에 한해서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도는 일반인이 관광할 수 없다.

② (나)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정확히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독도를 관람할 때에는 동도 부두 근처에서 30분 정도만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 시간이 제한된다고 하였다.

⑤ (다)를 통해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독도에 도착함을 알 수 있다.

- 03 (나)의 지도는 울릉도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독도의 구체적인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다.
- 04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첨부할 때에는 영상 제작자의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견해를 담은 영상이 아닌,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내용의 영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 05 사진이나 도표, 영상 자료는 글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주로 글 내용의 이해를 돕는 보조 자료나 예시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사진이나 도표, 영상 자료가 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6 정보를 선별할 때에는 지나치게 오래된 자료여서 정보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않는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정보인지를 따져 보는 것은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전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신뢰할 수 있는 최근의 정보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 07 이 글에서 독도에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② (다)에서 독도 주변의 깊은 바다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였다.
- ③ (나)에서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다.
- ④ (라)를 통해 독도에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독립문바위 등 다양한 암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다)를 통해 독도는 연안 생물과 심해 생물이 공존하는 수심대이기에 온갖 바다 생물은 물론,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생물 종까지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나)에서는 독도의 위치와 독도의 섬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릉도와는 거리가 가깝고, 독도가 하나의 섬이 아니라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09 (다)에서 독도 주변의 깊은 바다에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풍부하다고 하였을 뿐, 석유 자원이 매립되어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0 글쓴이는 독도의 위치와 전체 모습을 소개하고, 독도가 지닌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에서 이 글을 읽은 친구들이 독도의 가치를 깨닫고, 앞으로 독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 11 (라)의 소재물은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이다. 이와 관련 없는 다른 나라의 화산섬에 대한 예와 정보를 자세히 제시하는 것은 글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12 (다)의 도표에서는 독도 땅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 독도의 수산 자원과 지하자원의 가치는 알 수 없다.
- 13 독도 주변의 바다에 사는 연안 생물과 심해 생물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독도의 수산 자원이 지닌 가치를 보다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다.

DAY 20 주장하는 글 쓰기

본문 140~143쪽

실력 쌓기

141~143쪽

◆ 하나의 성격 유형이 나의 모든 것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 담화 설명 |

이 글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글쓴이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맹신하는 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주장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함.
근거	• 엠비티아이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움. •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음. •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01 ① 02 ⑤ 03 인용한 내용이 주장과 연관성이 있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자료로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4 ③ 05 ⑤ 06 ③ 07 ③
- 08 엠비티아이 검사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지며,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09 ③ 10 ② 11 ①

- 01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가 문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02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이 글을 썼다.

03 ㉠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글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4 표현의 적절성은 고쳐쓰기 단계뿐만 아니라, 표현하기 단계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05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6 (나)에서 전문가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해석해 준다면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했을 뿐, 일반인들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판단했을 때의 문제점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라)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한 번 결정된 검사 결과는 여러 번 검사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를 통해 인터넷상의 엠비티아이 무료 검사는 정식 엠비티아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검사임을 알 수 있다.

② (나)를 통해 엠비티아이 검사는 네 개의 알파벳으로 성격 유형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일 뿐이라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의 안내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

08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이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엠비티아이 검사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지며,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09 주장하는 글의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

10 (나)~(라)에서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까닭으로 엠비티아이는 ‘중간’의 성격을 설

명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ㄷ. (라)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으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검사 결과가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ㄹ. (나)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다고 하였으나, 엠비티아이 검사가 여러 유형의 성격 검사가 뒤섞인 것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1 제시된 자료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실력 쌓기

152~155쪽

- 01 ② 02 ④ 03 ④ 04 ①, ④ 05 ① 06 ②
 07 ㉠: 지우개, 의자 ㉡: 희망, 자유 ㉢: 명사 08 ④ 09 ⑤
 10 ④ 11 ② 12 ② 13 ③ 14 ②, ④ 15 ②
 16 '아주'와 '과연'은 모두 부사로,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주'는 뒤에 오는 부사인 '멀리'를 꾸며 주는 반면, '과연'은 '우리나라는 아름답구나.'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17 ② 18 ③ 19 ③ 20 ② 21 ⑤ 22 ④
 23 ③ 24 ② 25 ② 26 ④

01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지닌 단어들을 모아 분류해 놓은 갈래이다. 품사를 안다고 해서 해당 단어의 기원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우리말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개 품사가 있다.

③, ④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무리로,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이다.

⑤ 품사는 문장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품사에 해당하는지를 알면 해당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을 알 수 있다.

02 (가)는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나)는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이처럼 (가)와 (나)는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이는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03 <보기>의 '매우'와 '정말'은 각각 '파랗다'와 '크다'를 꾸며 준다. 이처럼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수식언이라고 하는데,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속한다.

오답풀이 ①, ③ '풍경'과 '고래'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체언이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으며, 제시된 단어는 모두 명사이다.

② '책'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체언으로 제시된 단어는 명사이다.

⑤ '치으셨다(짓다)'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이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으며, 제시된 단어는 동사이다.

04 단어가 지닌 공통된 의미적 특성에 따라 체언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주로 이름을 대신하여 쓰이는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인 수사로 분류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인 '감탄사'는 독립언에 속한다.

③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는 관계언에 속한다.

⑤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와 주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부사'는 수식언에 속한다.

05 ㉠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인 '명사'이다.

오답풀이 ② ㉡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인 형용사이다.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③ ㉢은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품사인 조사이다.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는 동사이다.

④ ㉣은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인 수사이다.

⑤ ㉤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인 동사이다.

06 '나'는 대명사, '생일'은 명사, '넷'은 수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지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07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구체 명사)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추상 명사)는 모두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08 ㉠은 앞서 제시한 '영화관'을 대신 나타내는 말, ㉡은 말하는 이인 '나'를 포함한 '수호', '민지'를 대신 나타내는 말, ㉢은 앞서 언급한 '관람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처럼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을 대명사라고 한다.

09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는 수사로, ㉠은 수량을 나타내는 기수사(양수사), ㉡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10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는 명사로, 체언에 속한다.

오답풀이 ①, ② 용언은 의미를 기준으로 동사와 형용사로 분류되며,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③, ⑤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므로, 사전에서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용언의 기본형으로 찾아야 한다.

11 '난다(날다)'는 '공중에 떠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인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나머지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12 ㉠은 동사, ㉡은 형용사이다. 동사는 형용사와 달리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는다/-는다’를 붙여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동사이다. 동사는 ‘달려라’와 같이 ‘-어라 / -아라’를 붙여 명령형으로 만들 수 있다.

③ ㉡은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바쁘자’와 같이 ‘-자’를 붙여 청유형으로 만들 수 없다.

④, ⑤ ㉠은 동사, ㉡은 형용사이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을 한다.

- 13 ㉠과 ㉡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과 ㉣은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14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며, 이 중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수식언인 관형사와 부사이다.

- 15 ㉠은 뒤에 오는 체언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은 뒤에 오는 용언 ‘갔다(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빨리도’, ‘빨리만’과 같이 일부 부사는 보조사와 결합할 수도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은 ‘신발’이라는 체언을 꾸며 주고, ㉡은 ‘갔다(가다)’라는 용언을 꾸며 준다.

③ 관형사는 체언 앞에 위치해야 하지만, 부사는 관형사에 비해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제시된 문장에서도 부사 ‘빨리’는 용언인 ‘갔다(가다)’ 앞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체언인 ‘집’ 앞으로 이동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⑤ ㉠은 관형사, ㉡은 부사로 수식언에 속한다. 수식언은 문장 내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16 밑줄 친 두 단어는 모두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부사인데, 각각 꾸며 주는 대상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 17 ‘을’과 ‘도’는 조사로, 문장에서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쓰인다.

오답 풀이 ①, ④ 문장에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조사로, 이는 관계언에 해당한다.

③ 앞말에 붙어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는 보조사이다. 제시된 문장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낸다.

⑤ 서술격 조사 ‘이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만, ‘이다’를 제외한 모든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불변어).

- 18 제시된 문장에서 조사는 ‘이’, ‘을’, ‘도’, ‘에’로 모두 4개이다.

- 19 <보기>는 감탄사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문장 중 ③의 ‘어이’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① ‘앗’은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 ④ ‘오냐’와 ‘그래’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⑤ ‘와’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20 ‘아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가볍게 내는 소리’로,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① 너’의 문장 성분은 독립어이지만, 품사는 대명사이다.

③ ‘철수야’의 문장 성분은 독립어이지만, 명사 ‘철수’에 호격 조사 ‘야’가 붙은 것이다.

④ ‘아차’는 감탄사로 쓰일 때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어떤 일이 어긋나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로 쓰였다.

⑤ ‘청춘’의 문장 성분은 독립어이지만, 품사는 명사이다.

- 21 제시된 문장에서 ‘거의’는 용언 ‘없습니다(없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22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과 ㉡의 ‘다섯’은 형태는 같지만 ㉠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수사이고, ㉡은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23 ㉠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체언으로, 품사는 명사이다. ㉡은 문장에서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으로, 품사는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체언으로, 품사는 명사이다. 제시된 문장에서처럼 명사는 ‘가’라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② ㉡은 문장에서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으로, 품사는 부사이다. 일부 부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④, ⑤ ㉠과 ㉡의 형태는 ‘어제’로 동일하기 때문에 ㉠과 ㉡은 기능과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해야 한다.

- 24 이 문장에 쓰인 용언은 형용사 ‘시원하게(시원하다)’와 동사 ‘온다(오다)’로, 2개이다.

오답 풀이 ① ‘참’은 ‘감회가 새롭거나 조금 감탄스러울 때 나오는 소리’를 뜻하는 감탄사이다.

③ 이 문장에 쓰인 품사는 감탄사(‘참’), 명사(‘비’), 조사(‘가’), 부사(‘정말’), 형용사(‘시원하게’), 동사(‘온다’)로, 모두 6개이다.

④ 이 문장에 쓰인 관계언은 ‘가’ 하나뿐이다.

⑤ ‘정말’은 부사인데,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어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사를 삭제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 25 독립언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이에 속하며,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관계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조사는 관계언에 해당하는데, 조사 가운데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고', '이어서' 등과 같이 유일하게 활용을 한다.

③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며,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에 속한다.

④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한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속하며, 체언은 주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지만, 홀로 쓰일 수도 있다.

⑤ 수식언은 문장 내의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데,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수식한다.

26 '일찍'은 뒤에 오는 용언 '일어났니?(일어나다)'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②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낸다. 이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한다.

③ '달리면서'와 '쓰고'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각각 기본형인 '달리다'와 '쓰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⑤ '그래'는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DAY 2 단어의 짜임과 새말

본문 156~159쪽

실력 쌓기

158~159쪽

- | | | | | |
|------|------|------|------|-------------------------|
| 01 ③ | 02 ⑤ | 03 ② | 04 ④ | 05 밤, 나무, 과일, 집, 안, 음식 |
| 06 ① | 07 ③ | 08 ⑤ | 09 ② | 10 '그 해에 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 11 ③ | 12 ⑤ | 13 ⑤ | 14 ⑤ | 15 ④ |
| 16 ③ | | | | |

01 형태소 중에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도 있지만,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도 있다.

02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므로 '마당', '에', '감', '나무', '를', '심-', '-었-', '-다'로 나눌 수 있다.

03 ③, ④, ⑤는 단어의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며,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예쁘-', '손', '가락'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이지만, '-다'는 실질적인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이다.

04 '푸르-'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가을', '하늘'은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고, '은', '-고'는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이다.

05 밤나무는 '밤 + 나무', 집안은 '집 + 안'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어근 + 어근)이고, '햇과일', '달음식'은 '과일', '음식'과 같은 명사에 '햇-', '달-'과 같은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접사 + 어근)이다.

06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는 어근과 접사이다.

오답 풀이

②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단어에 붙어 사용되지만 단어로 인정된다.

③ 단어 중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단일어라고 한다.

④ 단어는 결합된 형태소의 방식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며,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⑤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합쳐진 것을 복합어라고 한다.

07 '오가다', '밤송이', '고무신', '밤나무'는 모두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지만, '겹쟁이'는 어근 '겹'과 접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08 상진이가 만든 '맨손'은 '맨- + 손'으로 '맨-'은 '다른 것을 더하지 않은'의 뜻을 지닌 접사이므로, '맨손'은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이다.

09 먹보: '먹- + -보(어근 + 접사)', 생고기: '생- + 고기(접사 + 어근)', 치솟다: '치- + 솟(다)(접사 + 어근)', 검푸르다: '검(다) + 푸르(다)(어근 + 어근)', 새하얗다: '새- + 하얗(다)(접사 + 어근)'이다.

10 '햇-'은 접사로서 '그 해에 새로 난'이라는 뜻을 더한다.

11 (가)는 단일어로,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 즉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나)는 복합어, (다)는 파생어, (라)는 합성어이다.

12 'жат나무'는 'жат + 나무(어근 + 어근)'로 합성어이며, '잠꾸러기'는 '잠 + -꾸러기(어근 +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13 '덧-'은 '겹쳐 신거나 입는'이라는 뜻으로서 어근인 '버선'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는 접사이므로, 실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지 않다.

14 '오운완'은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에 해당한다. '라볶이(라면 + 떡볶이)'는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로, '웃프다(웃다 + 슬프다)'도 같은 형성 방법을 따르고 있다.

- 15 '엄지족'은 어근 + 접사의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단어이다. '누리꾼'도 어근인 '누리'와 접사 '-꾼'을 결합하여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 16 <보기>에 제시된 단어 '인생템'과 '꿀성대'는 모두 '인생'이나 '아이템(item)', '꿀'이나 '성대'라는 기존 단어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DAY 23 어휘의 양상과 쓰임

본문 160~163쪽

실력 쌓기

162~163쪽

- 01 ⑤ 02 ⑤ 03 세대에 따른 어휘 차이 때문이다.
04 ② 05 ② 06 전문어 / 전문어는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07 ④ 08 ⑤ 09 ④ 10 ⑤ 11 ②
- 01 (나)에 사용된 어휘는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든 말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말은 '은어'이다.
- 02 (가)와 (나)는 세대에 따른 어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03 (가)에서 딸과 아들은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어 엄마는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한편 (나)에서는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표현을 손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두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까닭은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이다.
- 04 ㉠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일반인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전문어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뜻을 담고 있어,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니는 경우가 많지 않다.
- 05 '미리 증인으로 호출되거나 소환되지 않고 법정에서 선정된 증인'을 뜻하는 '재정 증인', '당김음'을 뜻하는 '싱커페이션', '셋잇단음표'를 뜻하는 '트리플렛'은 모두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뜻이 세밀하여 대응되는 일반 어휘가 거의 없다.

- 06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해당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07 환자의 상태에 대해 말할 때, 의사는 동료 의사에게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어를 사용하고, 보호자에게는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어를 일반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하고 있다. 이처럼 상태에 따라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이다.
- 08 전문적인 분야의 용어를 일반인이 학습해야 한다는 대안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09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 언어의 특성 중 '생생하게 쓰기'와 관련이 있다. 글자를 빠르고 쉽게 쓰는 '간편하게 쓰기'의 예로는 줄임말 사용하기, 초성만 적거나 서술어 줄이기, 소리나는 대로 적기 등이 있다.
- 10 이모티콘이라 불리는 그림말만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말을 항상 문자 언어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1 민수가 글을 올린 학교 누리집의 '건의하기' 게시판은 공적인 소통 공간이다. 그러나 민수는 이러한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소통 상황과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VI 매체

DAY 24 상호 작용적 매체의 특성

본문 166~171쪽

실력 쌓기

169~171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6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 누리집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상호 작용적 매체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07 ③ 08 온라인 대화방 09 ④ 10 ① 11 ⑤

12 ④ 13 ② 14 공적인 정보를 특정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공적인 정보는 학교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01 (가)~(다)는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소통 목적이나 소통 공간의 특성 등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02 (가)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공간이다. 학교 생활 규정 중 개정할 사항처럼 공적인 정보를 학교 전체 구성원과 같은 다수에게 공식적으로 공유할 때에는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03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거나 글과 함께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매체는 누리집이다.

②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끼리 소통하기에 유용한 매체는 온라인 대화방이다.

③ '#' 기호 뒤에 특정 단어나 문구를 붙여 게시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해시태그'라고 한다.

⑤ 게시판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누리집이다.

04 (다)의 누리집은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매체로 주로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공간이다. 또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심 있는 누리집에 접근할 수 있고,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소통 방식이나 올릴 수 있는 글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오답 풀이 ㉠ 누리집은 주로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다.

㉡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개인적인 대화를 간단히 주고받을 때 활용하기 좋은 공간은 온라인 대화방이다.

05 생산자의 설정에 따라 게시 글마다 접근할 수 있는 독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블로그의 특성이다.

06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소리,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적 매체에는 온라인 대화방,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등이 있다.

07 블로그, 온라인 대화방,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모두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상호 작용적 매체로,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 풀이 ①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블로그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② 상대가 대화 내용을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대화방이다.

④ 개인 계정과 공식 계정으로 계정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⑤ '@' 기호를 활용하여 특정 사람이나 단체 등의 계정을 언급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08 온라인 대화방은 친밀한 관계의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기에 적합한 매체이다. 또한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면 함께 갈 친구들의 참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09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의사소통의 맥락과 목적, 소통 공간의 특성, 참여자나 수용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는 점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가)는 학교 누리집,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누리집은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매체로, 온라인 대화방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비해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다.

11 (가)는 공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된 누리집에서 공식적인 안내 사항을 게시하는 공지 사항 게시판이다. (가)의 작성자는 이러한 소통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적인 공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12 (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친구와 개인적으로 다룬 일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온라인 대화방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내의 일대일 대화 기능을 활용하여 친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13 회사 누리집의 고객 문의 게시판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공적인 성격의 공간이다. 그러나 <보기>는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고 있을 뿐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으며, ‘^_^’, ‘ㅠㅠ’와 같이 공적인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4 교내 행사에 대한 공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야 하는 공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에 올린 것은 소통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학교 공식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DAY 5 매체와 생활

본문 172~175쪽

실력 쌓기

174~175쪽

- 01 ② 02 ③ 03 음성 매체(라디오) /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일방향으로 전달한다. 04 ⑤ 05 ⑤
06 ③ 07 ② 08 ③ 09 ④ 10 ④ 11 ③
12 모든 정보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1 매체란 어떤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도 매체의 한 종류이다.

보충 자료

뉴 미디어의 특징

- 네트워크성: 이용자들은 공동의 네트워크 안에서 일대일, 일대소수, 일대다수, 소수대소수, 다수대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가상의 공동체 사회를 구성한다.
- 이동성: 뉴 미디어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 상호 작용성: 이용자는 스스로 콘텐츠를 찾아서 소비하고,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고 조회 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좀 더 적극적인 이용자는 개인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 주형일, 『똑똑한 이상한 꿈틀대는 뉴 미디어』

02 주제에 관심 있는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로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대중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03 주어진 대화 상황에 등장하는 라디오는 음성 매체로, 대표적인 대중매체 중 하나이다. 대중매체는 대중을 대상으로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고,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04 <보기>는 대중매체 중 텔레비전에 대한 설명으로, 대중매체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다.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05 개인 인터넷 방송은 일반적으로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의 규제 체계에 포함되거나 자율 규제 또는 플랫폼 규제를 따른다. 방송법은 주로 텔레비전 등 전통적인 방송 매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06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문적인 방송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 카메라, 웹 카메라 등의 간편한 촬영 장비를 활용하여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인 인터넷 방송이 성장하게 되었다.

07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 또는 소규모 인원이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 다수의 분업과 협업을 통해 매체 자료가 생산되며 제작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대중매체의 특징이다.

08 대중매체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실시간 상호작용이 어렵다.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수용자가 댓글을 달면 생산자가 이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방송에 활용하는 등 실시간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09 매체에서는 사람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이는 매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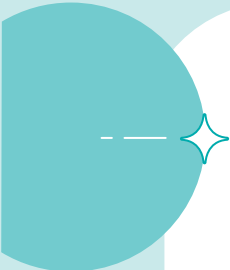
10 매체 자료는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고,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전수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11 매체 자료를 기본 전환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매체를 이용하는 올바른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매체를 이용할 때에는 매체 자료의 객관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12 개인 인터넷 방송은 비전문가도 제작할 수 있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다른 정보와 비교해 보는 등 비판적으로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on a memo page. The page features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et against a light blue background with decorative cloud-like shapes at the top and bottom corner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word MEMO.

Each row consists of four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re are 20 rows of these dotted lines available for practice.